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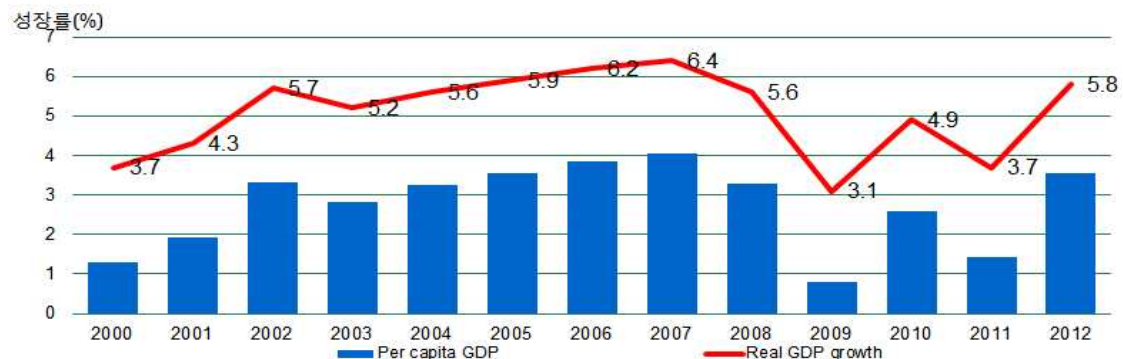
2012년 아프리카 경제, 긍정적 전망

작성자: 서상현

□ 2012년 아프리카 경제성장 전망

2012년에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6%에 가까운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정치적 변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은 2012년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실질 및 1인당 GDP성장률



다음은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들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전망해 본 것이다.

첫째,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많은 저소득층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지난 해에 이어 2012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 중 1/3은 2011년의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가구는 식료품 가격과 연료 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소말리아, 지부티 그리고 케냐 북부지역 등 일명 '아프리카 뿔' 지역은 기아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둘째, 일부 중간 소득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다. 남아공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이어진 높은 실업률로 3.5%에 그치고 2012년에도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석유수출국의 경우 석유가격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오일머니를 활용한 비석유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이들 부문에서

의 성장률도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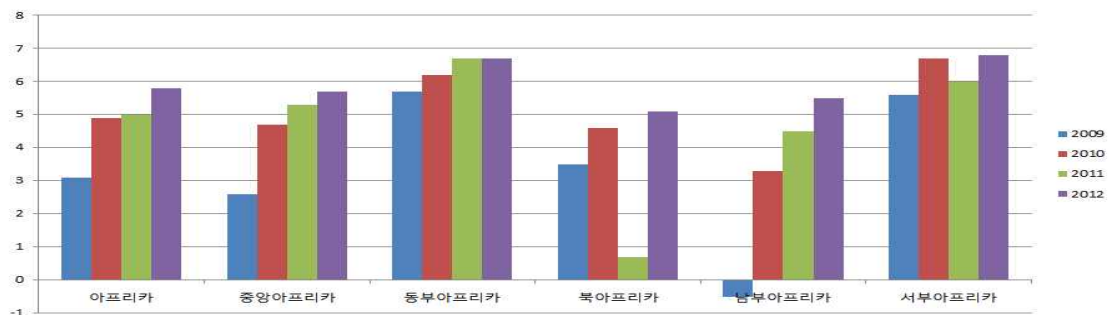
IMF는 최근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5.5%로 전망한 가운데, 영국 「This Is Africa」의 소비자 심리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예상 성장률이 5%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두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5.5~6% 정도로 예상했다.

서부 아프리카국가들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경제성장률이 7%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 아프리카 주요 경제국인 나이지리아는 6.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나 11.2%, 코트디부아르 8.5%, 라이베리아 9.4%의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가나의 경우,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원유생산 등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라리온은 대규모 철광석 프로젝트 착수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1.4%로 예상된다.

동부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자원빈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등의 투자확대와 남수단 독립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건설 붐 등으로 2012년에도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케냐는 6.1%, 탄자니아 역시 6.5%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르완다는 6.8%로 역대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에티오피아 역시 6%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우간다는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제2의 산유국이자 남부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국인 앙골라가 10.8%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잠비아와 모잠비크는 각각 6.7%, 7.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최대 산업국인 남아공은 4%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6%에 그칠 전망이다.

표 2. 지역별 성장률



2012년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으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진전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지속적인 인프라 등 건설 수요 등 국내적 요인들을 꼽았으며, 외부 요인으로는

높은 원자재 가격이 아프리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 산유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부아프리카에서는 철광석을 중심으로, 남부아프리카에서는 석탄을 중심으로 채굴산업(extractive industries) 분야가 2012년 아프리카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nsparo Asset Management사의 Graham Stock은 석유산업 부문에서 탐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산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2012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소비 증가로 인해 신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특히 소매업, 서비스, 소비재 부문의 성장을 예상했다.

□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리스크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리스크는 따른다. 특히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과 EU 등 선진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출에 대한 수요와 민간자금흐름의 감소로 지역의 통합경제의 성장은 제한될 것이다. 원자재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사하라이남 지역의 부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서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식료품 가격과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물가는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지난 해 보다 7.5% 상승한 수치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 높은 식료품 및 연료 가격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 거시 경제적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고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인 빈곤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많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 금융정책이 필요함을 또한 경고하고 있다. 또한 재정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 긴축금융정책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측은 세계 경제가 조만간 탄력성을 회복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빠른 회복이 어렵다면, 아프리카의 성장은 주춤할 수도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 경제가 정상화 된다면

는 전제 하에 이 지역의 성장을 또한 2012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의 평균 재정적자는 2011년 GDP의 4%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다시 감소해 3%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평균치는 예상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 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고 있는 공여국들이 재정문제에 부딪혀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이 식료품 및 연료 지원금 등의 가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재정적자는 크게 불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아프리카 각국에서 치러질 선거로 인한 리스크 또한 존재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부 관료들이 지출을 늘리게 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하고, 선거 시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아프리카 정치 또한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아프리카대륙의 가장 큰 교역지역인 EU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침체가 2012년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아프리카 산유국의 증가, 이밖에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광물자원 가격 등이 아프리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업국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아프리카 경제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 2012년에도 꾸준한 FDI 및 ODA 유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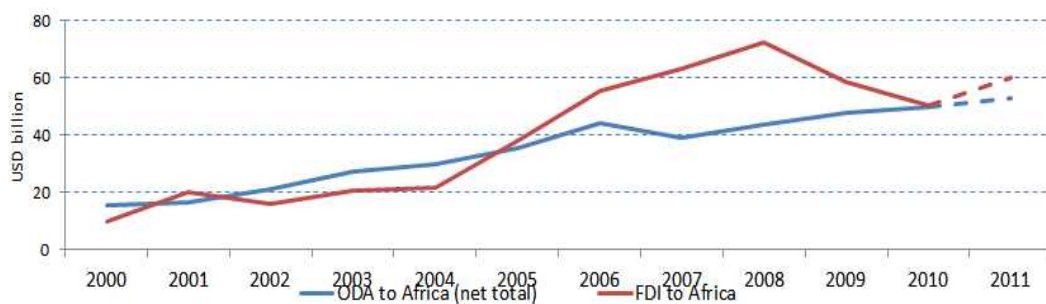
2012년에도 에너지, 상하수도, 도로, 철도, 항만 등 아프리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프라개선은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및 소비자에 대한 공급망 확충에 필수적이다. 특히 아프리카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전력부족 해소를 위한 발전부문의 개선은 인프라 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석유·가스 개발 부문이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륙의 절반 이상이 지질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인들의 소비증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현지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지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 적합한 사업전략을 세워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때 아프리카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던 모바일 뱅킹 부문이 성공을 거두고, 현지 식품업체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다국적 업체들을 제친 것 등이 그 예다. Akinluyi 투자담당자는 현재 대아프리카 투자는 주요 경제국가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

프리카 전역에 투자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UN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이미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대앙골라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99억4천만 달러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나이지리아와 가나는 각각 86억3천만 달러와 25억3천만 달러에 그쳤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모로코, 이집트 등 비교적 잘사는 국가들이 아프리카 내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표.3 아프리카로의 FDI 및 ODA 유입액



Source: OECD/DAC for ODA, UNCTAD for FDI 2000-2010

아프리카에 투자 시 위험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Akinluyi 투자담당자는 아프리카 주요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치적 리크스는 줄어든 편이나, 자본시장의 유동성 부족,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 등에 보다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경영 다각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Silk Invest사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아프리카 내 투자기회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kinluyi는 아프리카의 이미지에 대해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분쟁, 빈곤, 부패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이나 국제투명성기구의 통계수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40% 이상이 20세 미만이다. 도시화 또한 아프리카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화로 중산층이 형성돼 가처분 소득이 늘면서 식품류 외의 소비가 증가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부존자원이 풍부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자재 수입은 주로 투자 및 국가경제 발전 지원에 쓰이고 있다.

[참고자료]

OECD/DAC for ODA, UNCTAD for FDI 2000-2010

TradeInvest Africa, 2012/1/12

This Is Africa, 2012/1/5

IMF, 2012